

공공기관, 지난해 사회적기업 제품 1조8171억원 어치 구매

제작년보다 2000억원 증가...올해 목표는 2조986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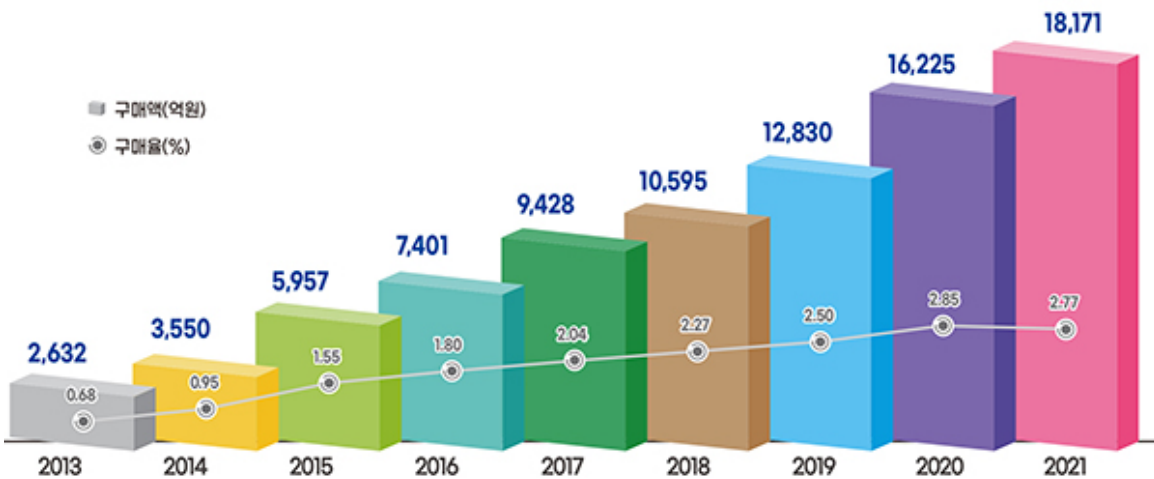
2022.04.27 고용노동부

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 1조8171억원 어치를 구매했다고 27일 밝혔다.

2020년(1조6225억원)에 비해 액수는 2000억여원 늘었으나 공공기관 전체 제품 구매액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율(2.77%)은 소폭 감소했다.

고용부는 지난해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해 공공기관 총구매액이 늘어난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.

백신 구매액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구매율은 2.92%이다. 코로나19 백신 구매액은 3조 2000억원으로, 지난해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4.8%를 차지했다.



연도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

고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, 전체 861개 공공기관 중 전년보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이 증가한 기관은 518개 기관으로 60%가 넘었다.

기관 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6577억 원으로 구매금액과 구매율이 가장 높았고, 이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순이었다.

주요 구매 품목으로는 사무·전산용품, 산업용품, 식품 등 물품이 50.6%를 차지해 9201억원이었고, 나머지 49.4%는 청소·방역, 재활용, 간병 등 용역이었다.

고용부는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증가는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온·오프라인 구매상담회를 개최하고 구매지원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는 등 다양한 구매촉진 노력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.

정부는 공공기관 및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구매 교육과정 운영 및 공공구매지원센터를 통한 구매상담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등을 지원했다.

올해도 공공기관들은 전년보다 2815억 원 증가한 2조 986억 원을 목표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늘려갈 계획이다.

고용부도 구매실적이 감소한 기관에 대해서는 원인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, 우선구매제도 교육 및 구매상담 등을 통해 실적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.

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“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”면서 “사회적경제를 위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인 e-store 36.5를 개편해 상품 물 기능개선 및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, 공공구매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한편 고용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공공기관별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매년 공고하고 있다.

문의 :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(044-202-7424)

인쇄하기

닫기